

詩에서의 공간 문제

김창호*

차 례

1. 공간 연구의 목적
2. 공간에 대한 일반적 논의
3. 공간과 상상력의 상관성
4. 결 론

1. 공간 연구의 목적

문학의 본질을 캐기 위해 몇몇 논자들은 작품에서 구현되는 공간을 그 연구대상으로 삼는다.¹⁾ 그것은 작품 속에 구현되는 공간의 의미가 작품 전체로 확대되어 작가의 상상세계를 대표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그들은 공간의 변화와 발전은 상상력의 작용과 궁극성을 대신한다고 본다. 실상 작가의 상상에 의해 표상된 공간은 그 작가의

*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1) 공간을 테마로 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송 옥; 「동서시에 나타난 내면공간」, 『문학평전』(일조각, 1969)

송명희; 「이상화시에 나타난 공간이미지와 시간의식」, 『비교문학』제6집, 1981. 12.

윤종호; 「윤동주 시에 나타난 공간연구」(경희대학교 대학원;석사, 1986)

유한근; 「김수영 시의 공간구조에 관한 시론」, 신상성 공저, 『한국문학의 공간구조』(양문출판사, 1986)

정봉래; 「이동주의 시공간」, 『비평문학·1』(한국비평문학회, 1987. 7)

김은자; 「현대시의 공간과 구조」(문학과비평사, 1988)

정한용; 「상상력의 공간, 그 내용 없는 아름다움」, 『현대시세계』, 1989.

여름호 등

모든 작품 속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러한 유기적 관계를 해명하는 것은 한 작가의 상상적 개진을 설명할 수 있는 계기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일반론이라고 볼 수 있는 제반의 공간이론에 대한 간략한 검토와 기존의 공간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공간과 상상력의 상관성을 살피고자 한다.

우리들의 삶이나 그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범주를 벗어나서 상상할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의 삶, 그 존재가 시간과 공간을 근거로 하여 실재하는 때문이다. 물론 시공을 초월한 인간의 상상세계에 대해 논자에 따라 수많은 반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엄밀히 인간의 상상세계란 것도 완전하게는 시공을 초월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상상세계에서도 가상의 시공이 설정되어야만이 스토리의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실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문학에서도 시공은 엄연히 실재한다.

개개인에게 있어 '생활'이라는 상황의 전개에는 어떠한 장소, 즉 어떠한 곳(공간)과 어떠한 때(시간)가 불가분의 관계 속에 얽혀있다. 시간의 전개에 따라 공간의 변화와 상황이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계속적으로 변화해 간다. 문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역할이 상황의 전개에 따라 구조적으로 선택되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문학에서의 시간과 공간은 각각의 성질과 특성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

시간은 현실적인 상황이나 사건의 흐름을 암암리에 결정하고, 때론 그 결과를 제시하기도 한다. 반면 공간은 시간의 지속성과는 달리 어떤 상황이나 사건의 실재를 보여주며 그러한 일련의 것의 본질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거듭되는 얘기지만 시간이란 것은 그 지속성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변화를 제시하고, 공간은 정지된 그림에서처럼 사물과 대상의 존재와 형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시간의 지속성에 의해 나타

나는 모든 변화의 양상은 문학작품에서 공간화되어 제시되며, 이러한 점에서 시간의 공간화²⁾가 나타난다. 여기서 공간화라는 용어는 사물이나 대상의 의미 측정에 있어 시간적 측정이 우선하기보다는 공간적 측정이 우선한다는 말로 이해된다. 따라서 현대문학의 본질은 문학적 구현에 있어 공간화를 지향하며 단순한 시간적 재생이나 언어에 내재한 시간의 지속성에서가 아니라 한순간의 사물의 총체성을 드러내려는 시도로 공간화의 변모를 살필 수 있다.³⁾ 요컨대 시 속에서의 공간은 시간과 더불어 인간의 삶과 존재를 표상하는 것으로서 시적 주제와도 깊은 관련을 맺는다. 공간연구의 목적은 작품의 본질을 구명하는 데 있다.

2. 공간에 대한 일반적 논의

시에서 공간의 문제가 거론되는 이유는 시간과 더불어 공간이 문학의 특질을 해명할 수 있는 범주로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시간과 공간은 삶을 설명하고 존재를 해명하기 위한 고전적인 범주로 이해되고 있다. 이처럼 시간과 공간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문학에서의 공간 연구는 시작된다. 그러면 공간이론으로서 주목되는 것들을 살펴보자.

예술에 있어서 시간예술과 공간예술을 처음 구분한 것은 렛싱이다. 그는 『라오콘(Laokoon)』에서 공간예술의 대표로서 회화를, 시간예술의 대표로서 문학을 들어 그 차이를 언급하고 있다.⁴⁾ 그러나 그것은

2) 시간의 공간화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은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재선; 『우리문학은 어디서 왔는가』, (소설문학사, 1986), p. 289.

오세영; 『현대문학의 본질과 공간화 지향』, 『문학사상』, (1986.4 · 5)

김은자; 『현대시의 공간과 구조』, (문학과비평사, 1988), p. 19.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91), p. 24. 등 참조

3) 오세영; 앞의 글. 1986.4. p. 227. 참조

여러 논자들의 지적처럼 예술의 질료적 측면에서의 분류이다.

실질적으로 문학에 있어서의 공간연구에 도움을 준 이론으로는 하르트만과 바슐라르의 이론을 들 수 있다.

하르트만은 공간을 ①실재공간과 ②직관공간, ③기하학적 이념공간으로 나누어 공간에 대한 유형과 특질을 밝히고 있으며⁵⁾, 바슐라르는 그의 물질적 상상력에 의한 공간의 원형심상을 기술하고 있다.⁶⁾

우선 하르트만이 구분하는 공간에 대해 살펴보자. 하르트만에 의하면 실재공간은 그 속에서 실재한 자연이 전개되는 차원으로서의 공간이고, 직관공간은 자연을 직관하는 우리의 의식의 형식으로서의 공간이다. 실재공간이나 의식(직관)공간은 단 하나밖에 있을 수 없으나, 기하학적 이념공간은 그렇지 않다. 나아가 그는 공간과 공간성을 구별하고 공간을 그 자체 物이 아니라 物의 공간성이 기초를 이루는 범주적 제약이라고 한다. 그리고 공간성의 본질 계기는 공간 내에 延長을 가진 物의 양, 위치, 방향, 운동 등이라고 말한다.⁷⁾

하르트만의 이러한 규정은 시에 변용하여 수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공간 차원간의 규정인 동종적, 동단위적, 수직적, 비좌표적이라는 개념과 용어 역시 차용이 가능하다고 본다.⁸⁾ 그렇지만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그것이 문학이론으로서 제시되었다기보다는 관념적·철학적 이론으로서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관념적이거나 철학적 이론이 문학비평으로서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문

4) 오세영; 앞의 글, 1984.4. p.225. 재인용.

5) 하기락; 『하르트만 연구』, (형설출판사, 1971), pp.101~110. 참조.

6) Gaston Bachelard; 『공간의 시학(La Poétique de l'espace)』, 광광수역, (민음사, 1990)

7) 하기락; 위의 책, pp.101~110.

8) 하르트만의 공간 이론을 바탕으로 시에 있어서의 공간을 연구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김선학; 『이미지와 시적 공간』, 『한국문학연구』 제4집, (동국대연구소, 1981)

유한근, 신상성; 앞의 책 등.

학에의 적용에는 이와 같은 이론이 변용 또한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문학이론으로 공간이론을 제시한 비평가로는 바슐라르를 들 수 있다. 바슐라르는 『공간의 시학(La Poétique de l'espace)』에서 공간에 대해 구체적인 유형 분류를 하지는 않았지만, 공간이미지들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이 책에서 문제되는 상상력의 궁극성은 <요나 콤플렉스(complexe de Jonas)>⁹⁾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들이 어머니의 태반 속에 있을 때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 형성된 이미지로서, 우리들이 어떤 공간에 감싸이듯이 들어있을 때에 안온함과 평화로움을 느끼게 되는데 주목한 것이다.

여기서 바슐라르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상상력의 자유로움이다. 그에 의하면 상상력의 자유로움은 현실과 비현실을 종합하는 미래적 기능을 지닌다고 강조한다. 그가 말하는 미래적 기능이란 상상력의 궁극성을 지향한다는 말로 이해된다. 그리고 그 말은 그의 상상력 이론에서 <與價되었다>는 말로 사용된다.

이상과 같은 바슐라르의 이론은 문학에서의 적용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공간의 유형분류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 자칫 무절제한 비평이 나올 수도 있다. 모든 공간이 요나 콤플렉스의 궁극성을 지닌다고 보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을 지닌다.

공간은 그 지향하는 세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일 수 있지만, 모든 공간이 바슐라르가 말하는 <요나콤플렉스>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9) 요나콤플렉스(complexe de Jonas)란 용이 우주적 상징이라고 부르는 중요한 콤플렉스인데, 그것은 <離乳 콤플렉스의 한 특이한 경우>로 생각될 수 있으며, 어머니에게로 돌아감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내면의 절대, 행복한 무의식의 절대이다>. 이것은 바슐라르가 제시하는 문화 콤플렉스의 하나로 상상력의 궁극성을 밝히는데 주요한 테마가 되어 왔다.

곽광수, 김현, 『바슐라르연구』(민음사, 1976), p.219참조.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에서는 대상, 혹은 이미지에 대한 與價를 살필 수 있다. 대상, 혹은 이미지에 대한 與價는 작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갖는다. 따라서 공간에 대한 與價에도 개별성을 인정해야 한다.

공간에 대한 與價에 의해 시에서 구현되는 공간을 유형적으로 분류하고, 공간의 유형에 따른 상상력의 궁극성을 살필수 있다.

이상과 같이 공간에 대한 일반론을 살핀 결과, 시에서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르트만이 제시한 공간 개념 규정에 따라 사물이 지닌 공간성을 인정하는 것, 둘째는 그와 같은 판단에 의해 공간의 유형을 작가나 작품에 따라 새롭게 분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것, 셋째는 공간의 특성을 살피 상상력의 궁극성을 밝히는 데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을 응용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3. 공간과 상상력의 상관성

여기서는 공간과 상상력의 상관성을 살피기 위해 공간 개념을 파악하고 작품 속에서 공간의 지닌 중요성을 상상력의 기능에 맞춰 설명하게 된다.

시에서 공간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시에서의 공간은 소설에서의 공간과 달리 본원적인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소설 속 공간이 사건의 진행과 변화에 따라 무대장치가 바뀌듯 이야기 속 배경으로서만 자리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시에서의 공간은 그 특성이 확연히 다르게 표상된다.

시에서의 공간은 소설에서의 경우처럼 시대적·사회적 공간을 배경으로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배경으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낸 다기보다는 공간 자체가 본원적인 속성을 지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간 자체의 본원적 속성이라 함은 어떤 상황이나 사건의 실재이며, 그러한 일련의 것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세계에서의 공간은 사물이 차지하는 공간성에 의해 공간의 실재성은 드러난다. 자연은 절대적인 비교의 기준을 제공하지 않으며 공간은 다만 사물과 사물 사이의 질서나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공간을 차지하는 사물이 없으면 공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주의 질서인 시간과 공간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할 것이다. 모든 공간은 시간과 더불어 하나의 사건 속에서만 가능하다.¹⁰⁾

결국 시간과 공간은 사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사물은 우주 안에 실재하는 것으로 공간의 일부만을 차지하지만 그 공간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을 분류하고 유형화할 수 있는 근거는 사물과 사물과의 관계에 있다.

시에서의 공간은 여러 의미로 정의될 수 있다. 우선 언어와의 관계에서 볼 때 시의 언어가 다른 언어와 맺는 관련성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시인은 한 편의 시 속에 서로 이질적인 여러 대상을 이미지라는 수단을 통해 하나로 연결시킨다. 다른 대상, 이미지들과 의미의 충격을 주고받고, 상호충돌과정에서 화해나 불협의를 새로운 자장을 펼쳐낸다.

시가 평면적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상호 충돌을 변증법적으로 계속하기 때문이고, 독자에 따라 하나의 작품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늘 열어두어야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공간의 확장과 축소가 바로 시인의 상상력에 기인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텍스트의 제2차적 구성이 독자의 몫이라면, 제1차적 텍스트의 구성은 시인의 상상력의 몫이다.¹¹⁾

10) 김동원;『시와 공간』,『현대시학』,1987.6. 참조.

11) 정한용;『상상력의 공간, 그 내용없는 아름다움』,『현대시세계』,1989.여름

시에서 구현되고 있는 공간은 언어에 의해 이루어진다. 시의 언어는 유기체를 이루어 언어의 유기적 배열과 상호 기능적 영향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언어의 유기적 배열과 상호 기능성은 시인의 직관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시인의 상상력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언어의 유기성과 상호 기능은 시에서의 공간을 이미지로 표상한다. 언어는 의사소통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만, 인간은 그것 이상의 목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려고 한다. 인간의 욕망에 의해 언어는 기능을 확장하게 되고 인간의 상상력은 언어의 기능을 확장하는 데 필연적인 작용을 한다. 이미지가 상상력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바슐라르의 말을 빌자면, 단어의 객관성은 닫혀진, 완료된 객관성이 아니라 열려 있는 미래형의 객관성이다. 언어적 상상력은 그 이전의 많은 다른 언어적 상상력들의 행위가 그 단어에 내려 놓은 침전물에 짓눌리지 말고 그 단어의 역사에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을 덧붙여야 하는 것이다.¹²⁾

이런 점에서 언어는 항상 새로운 의미를 창조한다고 할 수 있다. 언어에 의해 구현되는 시에서의 공간은 역시 언어가 확장하는 의미만큼 확장되는 것이며, 언어의 새로운 의미는 또한 그에 상응하는 공간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기능의 확장을 확인해 봄으로써 언어에 의해 구현되는 공간의 새로운 의미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얻게 된다.

상상력이란 것이 언어기능의 확장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론이 바로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이다. 그의 상상력 이론에 의하면, 상상력의 작용원리라고 할 수 있는 與價作用(la valorisation)¹³⁾의 단계적

호 참조

12) 곽광수, 김현; 앞의 책 p.46 참조.

구성을 살핀다면 그러한 언어 기능의 확장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가작용은 대상, 혹은 이미지에 대한 작용이다. 바슐라르에 의하면 여가작용은 4단계로 구분된다. 제1단계는 여가작용의 첫 번째 활동으로서 이미지가 표상하는 대상의 감각적 성질을 <과장>한다. 그리고 제2단계의 경우는 단순히 실질적인 성질을 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결 대담해지면서 새로운 성질을 대상에 심으려고 한다. 제3단계는 대상의 감각적 성질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이것 역시 대상을 그 자체의 물질성¹⁴⁾으로 파악함으로써 가능하다. 그것은

13) 바슐라르가 말하는 與價作用(la valorisation)이란 상상력의 활동을 말한다. 이것은 작가에게 창작활동과 관계되고, 독자에게는 감동과 관계된다. 여가작용에 있어서의 상상력의 활동은 그 자체로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미치는 모습에서 파악된다.

즉 여가작용은 상상력의 활동을, 특히 이미지의 표상적 요소에 대한 그 결과에서 지칭되는 말이다. 또한 이것은 현상을 한층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바슐라르의 미학을 하나의 문학비평 방법이 되게 하는 이미지의 현상학을 정립시키기 위한 예비작업이 된다.

대상에 대한 상상적 반응은 그것만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대상 가운데서이다. 그러므로 <시적 이미지의 현상>에서 대상과 상상력의 관계를 대상의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그 현상의 표면을 알아볼 수 있다.

곽광수, 김현; 앞의 책, p.49~69 참조.

14) 바슐라르에게 있어 대상은 물체와 물질에 따라 파악된다.

물체로서의 대상에 대한 상상력은 대상을, 뚜렷한 외곽선으로써 비타협적으로 다른 대상들과 경계를 짓고 나타나고, 결코 그 외곽을 이지러뜨리지 않을 모습으로 파악하며, 위 사실의 결과로 상상력은 대상의 저항을 느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만든다.

그리고 물질로서의 대상에 대한 상상력은 대상을 우리와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며, 따라서 상상력은 대상과의 단절을 느끼지 않고 대상의 변화를 豫期하게 된다.

이의 결과로 상상력은 차단되어 있지 않은 대상의 내부로 들어가 그 의 표면적인 변화와 무관한 실체를 파악할 것처럼 느껴 그 실체를 막연

무게(가벼움과 무거움)의 성질범주에서 여가되는 단계를 말한다. 여기서 바슐라르는 <비상의 꿈>에 주목한다. <비상의 꿈>은 순수한 동적 작용태, 즉 힘 자체라고 한다. 대상의 무거움은 잠재적인 힘이며, 그 무거운 대상이 실제적인 힘으로 변함으로써 무거움을 잃고 가벼워질 때 그 가벼움이 바로 실제적인 힘 자체라는 것이다.

우리 내부에는 힘 자체의 형태로 존재하는, 즉 작용태 자체로 존재하는 힘이 있다. 이 힘이 상상력이며, 그리하여 <비상의 꿈>은 상상력의 직접적인 작용태의 하나인 것이다. 제4단계는 상상력의 전적으로 자유로운 실현활동이다. 이 단계에 있어서는 우선 상상력이 있고 그 다음 뒤이어 그것이 대상을 창조하여 거기에 肉化함으로써 외계에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이 단계에서 여가작용은 오직 상상력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¹⁵⁾ 여기서 이미지는 상상력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를 당함으로써, 그것이 표상하는 대상에 변형, 변질을 준다. 그리하여 모든 이미지는 각각 저마다 하나의 생성을 만들어 간다. 그리고 그 생성은 대상의 실제적인 감각적 성질의 단순한 과장(제1단계의 여가작용)에서부터 시작하여 가능한 성질의 선택(제2, 3단계)을 거쳐 비현실적인 성질의 창조(제4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상상력은 언어의 기능을 확장하여 나간다.

여가작용이 대상과 상상력의 관계를 대상의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그 현상의 표면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한 점은 중요하다. 대상이 환기하는 공간성을 중점적으로 관찰할 때 여가작용은 공간과 상상력의 관계로 변용될 수 있다. 따라서 상상력과의 관계 하에서 공간을 연구할 때 공간의 변모와 발전 양상을 살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상상력

히 상상하는 것이다.

곽광수, 김현; 앞의 책. pp.29~30 참조.

15) 곽광수, 김현; 앞의 책 참조.

과의 관계에서 지향하는 공간의 궁극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4. 결 론

이제 문학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 작품에서 구현되는 공간을 연구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공간의 변화와 발전은 상상력의 작용과 궁극성을 대신한다. 실상 작가의 상상에 의해 표상된 공간은 그 작가의 모든 작품 속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러한 유기적 관계를 해명하는 것은 한 작가의 상상력 개진을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공간은 사물과 대상의 존재와 형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시간의 지속성에 의해 나타나는 모든 변화의 양상은 문학작품에서 공간화되어 제시되며, 이러한 점에서 시간의 공간화가 나타난다. 따라서 현대문학의 본질은 문학적 구현에 있어 공간화를 지향하며 단순한 시간적 재생이나 언어에 내재한 시간의 지속성에서가 아니라 한순간의 사물의 총체성을 드러내려는 시도로 공간화의 변모를 살필 수 있다.

요컨대 시 속에서의 공간은 시간과 더불어 인간의 삶과 존재를 표상하는 것으로서 시적 주제와도 깊은 관련을 맺는다. 작품연구의 목적이 작품의 본질을 구명하는 데 있다면 공간연구도 그 한 몫을 하리라고 믿는다.

앞에서 공간에 대한 일반론을 살핀 결과, 시에서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르트만이 제시한 공간 개념 규정에 따라 사물이 지닌 공간성을 인정하는 것, 둘째는 그와 같은 판단에 의해 공간의 유형을 작가나 작품에 따라 새롭게 분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것, 셋째는 공간의 특성을 살펴 상상력의 궁극성을 밝히는 데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을 응용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그리고 공간과 상상력의 상관성을 살핀 결과, 시에서의 공간은 배경으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낸다기보다는 공간 자체가 본원적인 속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그것은 원형¹⁶⁾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공간 자체의 본원적 속성이라 함은 어떤 상황이나 사건의 실재이며, 그러한 일련의 것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의 확장과 축소는 시인의 상상력에 의해 가능하다. 시에서 구현되고 있는 공간은 언어에 의해 이루어진다. 시의 언어는 유기체를 이루어 언어의 유기적 배열과 상호 기능성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인간의 욕망에 의해 언어는 기능을 확장하게 되고 인간의 상상력은 언어의 기능을 확장하는 데 필연적인 작용을 한다. 상상력의 영역에 이미지가 속해 있다는 것은 중요한 논지이다. 이런 점에서 언어는 항상 새로운 의미를 창조한다. 언어에 의해 구현되는 시에서의 공간은 언어가 확장하는 의미만큼 확장되며, 언어의 새로운 의미는 또한 그에 상응하는 공간을 갖게 된다.

상상력이란 것이 언어기능의 확장임을 말할 나위도 없다. 상상력의 작용원리라고 할 수 있는 바슐라르의 與價作用(la valorisation)을 살핀다면 그러한 언어 기능의 확장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언어의 새로운 의미의 생성은 대상의 실제적인 감각적 성질의 단순한 과장(제1단계의 여가작용)에서 시작하여 가능한 성질의 선택(제2, 3단계)과 비현실적인 성질의 창조(제4단계)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처럼 상상력은 언어의 기능을 더없이 확장하여 나간다.

따라서 상상력과의 관계에서 공간을 연구할 때 공간의 변모와 발전 양상을 살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상상력과의 관계에서 지향하는 공간의 궁극성을 파악하는 것일 수 있다.

16) 여기서 원형이라 함은 상상력의 보편적인 궁극성, 즉 상상력의 보편적인 目的因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